

국가별 동향



대만

빵 만들 때, 멜라민 검출된 유제품 대신 계란 단백질 이용

대만 행정원 위생서는 중국 하이룽장성에서 생산된 세계적 식품업체 네슬레사 분유에서 미량의 멜라민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예진찬 위생서장은 “대만 보건위생당국의 검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소량의 멜라민 성분이 함유된 유제품 수입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 및 미국·일본·유럽의 식품안전 전문가들과 상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네슬레 분유제품은 지난 9월 위생서가 식품공업발전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해 합격 판정을 받은 제품들이어서 대만 네슬레 측은 위생서 판정 기준에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우유 함유 제빵 업체들의 매상도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타이중시 등 중부 지역 식품 업체 모임은 기자회견을 열어 계란 단백질로 우유를 대신하는 전통 제빵 기법으로 만든 제품을 12대만달러(한화 약 40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출시한다는 지구책을 발표했다(출처 : TVBS).



이란

기네스북에 오를 빵 시민들이 먹어치워

이란이 세계 최대 샌드위치 부문에서 기네스 기록에 도전했지만 구경하던 시민들이 기록 측정 중 빵을 먹어치우는 바람에 기록 경신이 수포가 됐다.

행사 주최 측은 이날 “제2회 국제음식건강축제”가 열린 테헤란의 한 공원에서 닭고기와 타조고기 각각 700kg이 들어간 1,500m 길이의 샌드위치를 만든 뒤 기네스협회 관계자와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그러나 협회 관계자 3명이 길이를 측정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민들이 갑자기 한쪽에서 몰려들어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행사장은 일순간에 혼란에 빠졌다. 1,500명이 함께 모여 심혈을 기울여 만든 샌드위치는 순식간에 사라졌고 기네스협회 관계자들도 더는 기록 측정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행사장을 떠났다.

행사 주최 측 관계자는 “샌드위치 완제품이 촬영된 비디오테이프를 기네스협회에 보내 기록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기네스북에 등재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출처 : Reuters).



미 국

콜린 세척 기술 개발

미국의 Georgia 대학교 연구팀은 유해한 박테리아로 오염된 음식을 원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콜린 세척 기술을 개발했다.

이 새로운 항균제는 살모넬라나 대장균군(O157:H7)에 감염된 가금산물이나 닭고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박테리아의 구성요소에 결합 작용하여 오염원을 1~5분 내에 사멸시킨다.

항균제는 스프레이 형태로 뿌리거나 또는 용액에 담그는 식으로 사용하면 된다(출처 : World Poultry).



뉴질랜드

햇대에서 잠자고 음식 쪄아 먹는 피지의 '치킨보이'

치킨보이(수지트 쿠마르, 36세)는 두 살이 채 되기 전 닭장에 버려져 닭들과 여덟 살이 될 때까지 생활했을 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22년 동안이나 어느 노인의 집에 줄에 묶여 감금된 채 살아왔다. 그는 사람들이 쓰는 언어나 기술을 전혀 배우지 못해 어린 시절 닭장에서 배운 학습을 지금도 그대로 따라하며, 그야말로 한 마리의 닭으로 살아오고 있다. 의사표현 수단도 '물 쥐', '밥 쥐' 하는 언어 대신 닭들처럼 '꼬끼오' 하고 소리를 지르는

계 고작이다.

닭이 되어버린 한 인간의 슬픈 운명이 처음 세상에 알려진 건 지금으로부터 5년 전, 피지에서 사업을 하는 호주 출신 여성 사업가 엘리자베스 클레이튼이 불우한 처지에 있는 피지인들을 돕는 자선사업을 하던 중 가구를 전달하기 위해 우연히 그가 있던 집을 찾아가게 되면서였다.(출처 : YTN).



독 일

올해 첫 AI 발생

독일에서 올해 처음으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등 가금류 1,400여 마리를 살처분 했다.

독일 국립동물방역기관인 Friedrich-Loeffler 수의학연구소는 "독일 동부, 폴란드 국경 마을인 Marcusdorf의 한 오리사육장에서 오리 한 마리가 AI 변종 바이러스로 H5N1에 양성반응을 보였다"면서 실제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실험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Saxony state 보건부의 Ralph Schreiber 대변인도 이날 새벽 4시부터 살처분 작업을 시작하는 한편 사육장 주변 반경 3km를 격리 구역으로 정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에서는 지난해 12월 이후 AI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독일 주변국에서 AI가 보고된 사례도 스위스에서 야생오리가 양성반응을 보였던 지난 3월이 마지막이었다(출처 : Herald Tribune). **양계**